

## 無等山 道立公園의 登山路 利用現況과 登山路 選定要因<sup>1</sup>

金相晔<sup>2</sup> · 吳光仁<sup>3</sup>

### Present Use of Trails and Influential Factors on Trail Selection<sup>1</sup>

-in Mudeung-san Provincial Park-

Sang-Oh Kim<sup>2</sup> and Kwang-In Oh<sup>3</sup>

#### 요 약

본 연구는 무등산 도립공원의 등산로 이용현황을 알아보고, 이용자가 등산로를 선정할 때에 어떠한 속성과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1996년 8월중 전남지방의 화순군과 담양군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걸쳐 위치한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실시되었다. 현지설문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173명의 조사대상자중 519명(44.2%)이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등산로를 선정하는 요인은 크게 8가지 특성으로 분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순위를 보면, 1) 경관의 미, 2) 안전성(물리적, 범죄), 3) 건강을 위한 여건, 4) 고요함, 5) 친숙성, 6) 목적지로 가는 길, 7) 편리성/사회성, 8) 타의에 의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의 순위는 각 등산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연령, 그룹의 크기, 방문경험의 횟수 등과 같은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행태에 따라서도 특정 요인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를 보였다.

휴양동기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1) 자연과의 접촉, 2) 자기훈련, 3) 고독, 4) 사회적 교류, 5) 문화유적지 답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산로에 관계없이 '자연과의 접촉'은 모든 등산로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그 이외의 4가지 휴양동기에서는 등산로에 관계없이 중요도의 순서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특정 등산로의 선정요인과 휴양동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등산로의 특성과 선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등산로의 집중적인 이용현상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사회·생태적 문제의 감소와 양질의 다양한 휴양경험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토의와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why users in recreation settings select particular trails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ffective recreation resources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use of the major trails in Mudeung-san Provincial Park and the major influential factors on trail sele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Mudeung-san Provincial Park stretching over Hwasun-gun and Damyang-gun of Chonnam Province and Kwang-ju city during August in 1996.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site survey and mail-back questionnaire. 519(44.2%) out of 1173 survey samples were used

<sup>1</sup> 接受 1997年 11月 6日 Received on November 6, 1997.

<sup>2</sup>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sup>3</sup>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Department of Fore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for analysis.

Reasons for selecting a particular trail were classified into 8 major factors. In overall, the order of the importance degree of the factors was 1) aesthetics of landscape, 2) safety(from physical and crime), 3) conditions for health, 4) quietness, 5) familiarity, 6) on the way to the destination, 7) convenience/social, 8) others' inten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importance of each factor depending on trails, users' characteristics(eg., gender, age, group size, visit experience, etc.) and users' behavioral patterns.

Recreation motivations were classified into 5 major factors. The order of the importance degree of the factors was 1) contacting with nature, 2) self-training, 3) solitude, 4) social interaction, 5) appreciating cultural properties. Regardless of trails, 'contacting with natur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he degree of importance in the other 4 motivational factors showed only a little differences in order according to the trails.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major factors for trail selection and recreation motiv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through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use of trails and influential factors on trail selection. It can be used for reducing the present social and ecological problems caused by use concentration on certain trails and providing users with better quality of diverse recreational experiences. This study discussed the findings, and suggested some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ese information.

*Key words : recreation settings, trails, recreation motivations, management*

## 서 론

최근에 산림휴양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제한된 자원의 과도한 이용에 의한 토양침식과 식생과피 등 자연생태훼손과 혼잡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용으로 인한 사회·생태적 문제는 산림휴양지역의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나기보다는 휴양객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곳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휴양장소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용되는 반면, 다른 장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휴양활동을 위한 장소를 선정할 때에 무작위 선정과정이나 우연에 의지한다고 보지 않으며, 장소선정 과정에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Clark와 Downing, 1984).

휴양행위의 종류나 장소의 선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위하여 마케팅 또는 소비자 행동이론 등이 자주 적용되어 왔다(Harris 등, 1984; Watson과 Roggenbuck, 1984). 특히 속성접근방법(attribution approach)은 학자들 사이에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마케팅 이론에서는 여러 대안의 상품이 있을 때, 고객이 상품 그 자체만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각각의 상품들이 지닌 속성(예, 가격, 디자인, 성능, 편리성 등)을 견주어 보고 상품을 선정한다고 보았다(Engel 등, 1990). 휴양장소의 선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대안의 휴양장소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용자들이 어떤 장소를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장소의 속성(attributes)을 비교하여 보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본인의 휴양경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McCool 등, 1984).

현재, 미국의 주요한 휴양자원관리시스템의 하나인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ROS)도 이러한 장소의 속성들의 조작에 의하여 휴양경험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전제조건 위에 성립된다(Driver 등, 1987). 즉, ROS에서 지향하는 다양한 휴양경험의 제공은 이러한 속성들을 관리함으로써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속성접근방법은 산림휴양자원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리인들은 휴양장소의 선정과정에 이러한 속성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러한 속성을 변화 또는 조작 관리함으로써 휴양경험의 종류 또는 휴

양객의 이용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휴양장소의 보다 나은 관리를 가능케 한다. 예를 들면, 특정 휴양장소가 이용집중현상으로 인하여 혼잡문제나 생태파괴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 장소의 어떠한 속성이 과용의 원인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속성을 조절 관리함으로써 이용행태 또는 휴양경험을 관리목적에 일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유도할 수 있다.

과용에 의한 산림휴양자원의 황폐와 혼잡문제가 심각한 우리의 현실은 이용자수 제한, 이용분산 또는 자연휴식단체 등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하거나 시행하도록 이끌었지만, 휴양자원의 이용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특정 문제지역의 이용집중현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무등산 도립공원의 주요 등산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2)이용객의 등산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조사하였으며, 3)각 등산로와 이용객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등

산로 선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4)이용객의 휴양동기와 등산로 선정요인 간의 관계도 알아보았다.

##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는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 그리고 광주광역시, 세 개의 다른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Fig. 1). 무등산 도립공원은 1972년에 산악형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0,230km<sup>2</sup>로 광주시와의 근접성과 자연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년 총 방문객수는 1987년에 294만 7천명으로부터, 1991년에 588만 2천명, 1995년에는 709만 3천명에 이르러, 그 증가율은 약 12%로 2000년에는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1996). 현재 자연휴식단체와 취사금지가 적용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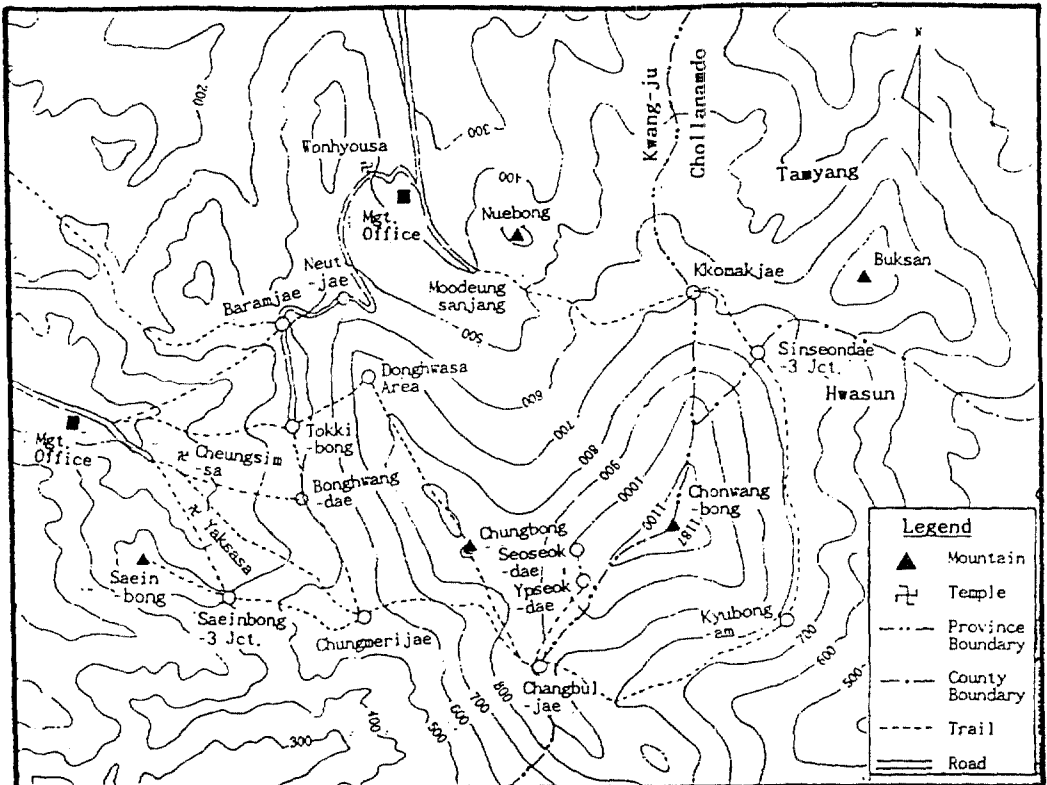


Fig. 1. Main study area and trails in Moodeung-san Provincial Park

지정된 등산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도립공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객으로 인한 등산로의 침식과 혼잡, 그리고 이용객의 잘못된 이용 행태가 도립공원의 주요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무등산 도립공원에 휴양객이 가장 많은 기간인 8월중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휴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은 조사기간 중의 주일과 주말 그리고 휴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두 단계, 즉 1)연구지역에서의 현지설문조사(on-site survey)와 2)우편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첫 자료수집단계는 선정된 날에 공원의 주출입구인 원효사와 증심사입구에서 하산하는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각 시간대마다 무작위로 약 20명의 휴양객을 선발해서 조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용했던 등산로

루트를 표시하고 우편주소와 성명 등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첫 자료수집단계에서 총 1,173명의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였으며 두 번째 자료수집단계에서는 1차조사에 응했던 대상자 중 이용이 가능한 1,014명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설문을 우편으로 보냈으며, 3차에 걸친 회신요구편지로 결국 519(44.2%)명이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되었다.

등산로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설문 조사시 조사대상자들이 표시한 당일 이용 등산로 루트를 자료로 하여 등산로를 Fig. 2에서처럼 27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등산로 구간의 이용빈도와 이용률을 분석하였다.

등산로 선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가 이용한 등산로 루트를 Fig. 2에서처럼 11개 등산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응답자가 특정 등산로를 선정한 주요한 이유를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23개의 선정요인항목에 대하여 각각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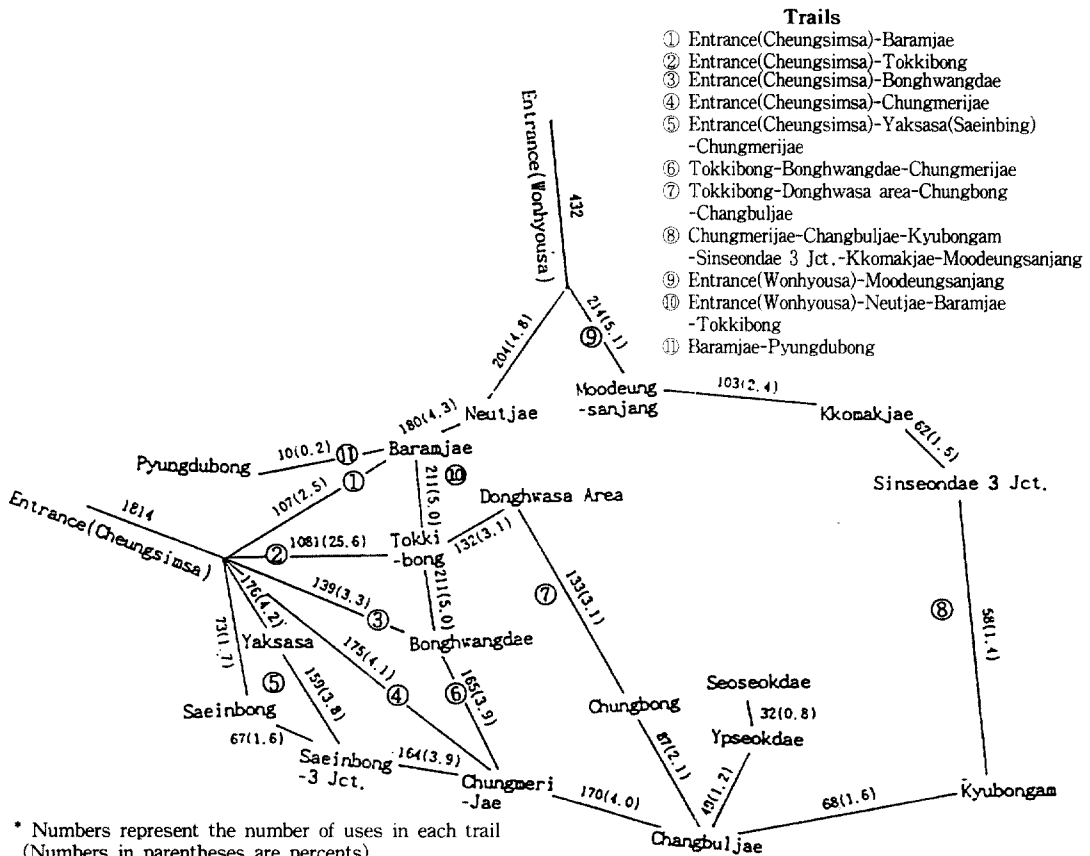


Fig. 2. The present use of main trails in Moodeung-san Provincial Park

**Table 1.** Factor analysis(Varimax rotation method) of items of trail selection reasons

Items of reasons for trail selection	Factor loadings							
	F1	F2	F3	F4	F5	F6	F7	F8
<u>Aesthetic landscapes</u>								
- Beautiful surrounding landscapes	0.75	-0.02	0.08	0.03	0.17	0.28	-0.06	0.22
- Due to the shades over the trail	0.59	0.12	0.24	0.18	-0.08	0.06	0.33	-0.07
- Water valley along with trails	0.63	0.30	0.05	0.04	0.11	0.07	0.08	0.00
<u>Convenience/social</u>								
- Many users	0.05	0.67	0.12	0.05	0.24	0.22	0.09	-0.03
- Existence of steps in the trail	0.24	0.63	-0.02	0.12	0.16	-0.10	0.16	0.41
- Wide trail	0.23	0.76	0.22	0.11	0.08	-0.06	0.14	0.16
<u>Safety</u>								
- Easy hiking due to a gentle slope	-0.05	0.26	0.69	0.07	0.10	0.37	0.04	0.03
- Safe trail	0.55	0.15	0.56	0.03	0.02	-0.01	-0.02	0.09
- Not much relief and fewer rocks and gravels than other trails	0.23	0.39	0.60	0.18	0.15	0.03	-0.00	0.12
- Low crime potentials	0.35	0.34	-0.42	0.12	0.18	-0.31	0.10	-0.16
- Fit with my or companions' physical abilities	0.17	-0.14	0.73	0.17	0.09	0.01	0.26	0.09
<u>Familiarity</u>								
- Habitually	0.05	-0.03	0.11	0.80	0.08	-0.00	0.15	0.03
- Don't know other trails	0.22	0.21	0.18	0.39	0.35	-0.24	-0.03	0.14
- Familiar with the trail	0.36	0.15	0.31	0.61	-0.18	0.05	0.10	0.14
- At random	-0.02	0.29	-0.04	0.52	0.29	0.15	-0.26	-0.22
<u>Other's will</u>								
- Recommended by friends	0.17	0.10	0.13	0.10	0.84	0.03	-0.01	0.14
- By other companions' wills regardless of my will	-0.03	0.22	0.07	0.03	0.81	-0.02	0.07	0.11
<u>Quietness</u>								
- Few users than other trails	0.04	0.12	0.09	-0.02	0.02	0.81	0.17	0.02
- Quietness	0.37	-0.06	0.09	0.10	-0.03	0.73	-0.09	0.14
<u>Health</u>								
- Existence of water well	0.13	0.09	0.20	-0.11	0.03	0.05	0.74	-0.02
- Good for physical training due to the steep slope	0.01	0.17	-0.03	0.33	0.04	0.06	0.75	0.08
<u>On the way to the destination</u>								
- A way to a temple or relics	0.13	0.12	0.09	0.00	0.20	0.14	-0.03	0.79
- Shortest way to the destination	-0.13	0.30	0.20	0.43	0.14	0.06	0.27	0.44
Eigenvalue	5.98	1.95	1.62	1.41	1.26	1.08	0.97	0.86
Total variance explained : 66%								

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23개의 요인항목은 전남 대학교 입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요인의 중요도는 '중요치 않다(1)'로부터 '극도로 중요하다(5)'까지 5단계 등간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휴양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Table 2에서처럼 17개 항목의 휴양동기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물었다. 17개 휴양동기 항목은 Driver(1977)에 의하여 고안된 휴양동기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대상지

역의 특성과 휴양활동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중요도는 '중요치 않다(1)'로부터 '극도로 중요하다(5)'까지 5단계 등간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특성과 이용행태**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구성을 보면 남자(68%)

**Table 2.** Factor analysis(Varimax rotation method) of items of motivations

Items of motivations	Factor loadings				
	F1	F2	F3	F4	F5
<u>Experiencing Nature</u>					
- To experience peace and calm atmosphere	0.71	0.42	-0.06	0.01	0.03
- To release tension by getting away from daily routine	0.78	0.26	0.02	0.16	-0.14
- To contact with nature	0.76	-0.01	0.28	0.02	0.01
- To learn nature	0.49	0.13	0.42	0.23	0.21
- To enjoy the natural landscape	0.63	0.16	0.23	0.18	0.27
<u>Solitude</u>					
- To be alone	0.27	0.79	0.16	-0.10	0.03
- To get away from other people	0.19	0.81	0.05	0.11	0.00
- Looking for solitude	0.06	0.79	0.20	0.08	0.14
<u>Self-training</u>					
- Being self-reliant	0.22	0.28	0.68	0.27	0.03
- To test my ability of mental patience	-0.03	0.27	0.78	0.04	0.19
- For physical exercise or for health	0.34	-0.04	0.60	-0.07	-0.06
<u>Social interaction</u>					
- To Get together with family and friends	0.38	-0.11	0.18	0.66	-0.10
- For social interaction with organized groups	-0.02	-0.04	0.33	0.71	-0.02
- To enjoy water	-0.01	0.20	-0.25	0.67	0.32
- To escape from hot weather	0.11	0.10	-0.02	0.61	0.23
<u>Appreciating cultural properties</u>					
- Pray in the temples	-0.09	0.19	0.01	0.09	0.77
- To visit cultural relics	0.19	-0.10	0.15	0.16	0.82
Eigenvalue	4.84	1.96	1.69	1.36	1.08
Total variance explained : 64.3%					

가 여자(32%)보다 많았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41 - 50세(32%)가 가장 많았으며, 51 - 60세(21%), 18 - 30세(18%), 31 - 40세(16%), 61세 이상(1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대학재학이상이 전 응답자의 50%를 차지하였으며, 고졸이 35%, 고졸미만이 1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응답자의 대부분(94%)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지 6%만이 여타지역(전남지방 : 4% ; 여타 지방도시 : 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용행태

무등산을 방문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70%), 승용차(25%), 영업용택시(3%), 도보(1%), 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무등산 방문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98%)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무등산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조사 당일 처음 방문한 응답자는 단지 2%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58%는

한 달에 1 - 5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6 - 10번 방문이 17%, 0 - 1번 미만 이 11%, 11 - 20번이 10%, 21 - 35번이 3%로 조사되었다. 계절적 방문빈도는 3 - 5월(43%), 9 - 11월(28%), 6 - 8월(20%), 12 - 2월(9%)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1990년 탐방객 의견조사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광주직할시, 1990). 요일별 방문빈도는 일요일(38%), 특정한 지정없이(30%), 주일(19%), 토요일(7%), 기타(5%), 매일(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공원 입장시간은 주로 5 - 7시(18%), 7 - 9시(30%), 9 - 11시(45%), 11 - 13시(2%), 13시 이후(7%)였으며, 퇴장시간은 7 - 9시(8%), 9 - 11시(11%), 11 - 13시(22%), 13 - 15시(25%), 15 - 17시(27%), 18시 이후(7%)로 나타났다.

도립공원 내에서 체류시간의 분포는 2.5 - 4시간이 응답자의 42%를 차지하였으며, 4.5 - 6시간 이 33%, 2시간 이하는 13%, 6.5시간 이상은 12%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체류시간은 4.4시간

(SD : 1.8)으로 나타났다.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응답자가 참여한 주요한 활동은 등산(85%이상), 약수마시기(64%), 도시락 먹기(24%), 명상(21%), 운동 또는 기계체조(20%), 보리밥 또는 식당에서 식사(20%), 약수 받아가기(18%), 라디오 듣기(17% ; 이 중 83%는 이어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공부(13%), 사찰 또는 암자답사(10%), 사진 찍기(10%), 고함치르기(8%), 노래부르기(4%), 불놀이(3%), 술마시기(3%), 쓰레기 줍기(10%), 화투놀이(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그룹구성원을 보면 친구와 함께(29%), 가족과 함께(28%), 가족과 친구(14%), 혼자서(16%), 클럽 또는 사회조직(11%), 기타(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그룹수는 혼자서(17%), 2명(35%), 3명(17%), 4명(11%), 5명(6%), 6 - 10명(8%), 11 - 20명(3%), 21 - 50명(2%), 51 - 95명(1%)으로 조사되었다.

### 3) 등산로 이용현황

Fig. 2는 각 등산로 구간을 응답자들이 몇 번이나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도립공원 내 주요등산로 이용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등산로의 이용상태를 이용률이 높은 순서로 보면, 중심사 - 토끼등(1,081번) 구간이 25.6%로 가장 높았고, 무등산장(214번 : 5.1%), 토끼등 - 바람재(211번 : 5.0%), 무등산장 - 늦재(204번 : 4.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심사 - 토끼등 구간은 다른 구간의 5배 - 25배의 이용률을 보였다. 이용률이 낮은 순서로부터 보면, 평두봉 - 바람재(10번 : 0.2%), 입석대 - 서석대(32번 : 0.8%), 장불재 - 입석대(49번 : 1.2%), 신선대삼거리 - 규봉암(58번 : 1.4%), 꼬막재 - 신선대삼거리(62번 : 1.5%), 규봉암 - 장불재(68번 : 1.6%)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등산로 구간은 전체 이용빈도의 약 0.2% - 1.6%의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 4) 등산로 선정요인

등산로 선정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총23개 항목의 등산로 선정요인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한 결과, 8개 요인(factor), 즉 '경관미', '편리성/사회성', '안전성', '친숙성', '타의에 의해', '고요함', '건강을 위한 여건', '목적지로 가는 길'로 그 항목이 감소되었다(Table 1).

전체적으로 볼 때, 등산로 선정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1)경관미, 2)안전성, 3)건강을

위한 여건, 4)고요함, 5)친숙성, 6)목적지로 가는 길, 7)편리성/사회성, 8)타의에 의해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등산로별로 보면, 등산로 선정시 고려하는 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의 순위가 등산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Table 3에서처럼, '경관미'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총 11개 등산로 중 6개 등산로 구간(등산로1, 등산로3, 등산로5, 등산로6, 등산로7, 등산로9)으로 나타났고, 등산로2는 '건강을 위한 여건'이 가장 중요한 선정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등산로4와 등산로10은 '안전성'이, 등산로8과 등산로11은 '고요함'이 가장 중요한 등산로 선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선정요인의 중요도가 등산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Bonferroni T-test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건강을 위한 여건'의 선정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등산로2에서 다른 등산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경관미'에 대한 중요도는 등산로9와 등산로1에서 다른 등산로보다 높게 나타났다. 등산로8과 등산로11에서는 '고요함'에 대한 선정요인의 중요도가 다른 등산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각 선정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등산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등산로의 특성과 현 이용현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에 나타난 것처럼, 등산로2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로, 이 곳은 금경사의 등산로, 주요 약수터의 존재, 체육시설 등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여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등산로2를 선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등산로9와 등산로1은 등산로 주변에 계곡이 있어 '경관미'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자연경관미의 감상을 원하는 이용객들을 끄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등산로8과 등산로11은 현재 이용이 가장 적은 등산로로(Fig. 2), 높은 표고와 많은 등산 소요시간을 요구하는 지리적인 여건(등산로8의 경우) 또는 접근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접근용이성의 결여(등산로11의 경우) 등도 두 등산로의 이와 같은 이용행태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용행태는 등산로8과 등산로11에 '고요함'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선정요인의 중요도가 다른 등산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등산로4와 등산로10은

Table 3. Importance of trail selection factors and motivations by trails

Factors	Trail Sections <sup>1</sup>											Total
	Trail 1 Mean <sup>2</sup> (SD)	Trail 2 Mean(SD)	Trail 3 Mean(SD)	Trail 4 Mean(SD)	Trail 5 Mean(SD)	Trail 6 Mean(SD)	Trail 7 Mean(SD)	Trail 8 Mean(SD)	Trail 9 Mean(SD)	Trail 10 Mean(SD)	Trail 11 Mean(SD)	
Selection factors												
F1*	3.05(0.96)	2.42(0.90)	2.51(0.74)	2.24(1.00)	2.21(0.80)	2.75(0.79)	2.46(0.75)	2.43(0.78)	3.25(0.80)	2.36(0.70)	2.46(0.64)	2.50(0.87)
F2	1.58(0.66)	1.73(0.75)	1.68(0.77)	1.70(0.75)	1.41(0.51)	1.90(0.85)	1.39(0.50)	1.43(0.56)	1.82(0.73)	1.63(0.84)	1.63(0.92)	1.61(0.70)
F3	2.57(0.79)	2.56(0.85)	2.32(0.77)	2.39(0.75)	2.19(0.69)	2.61(0.64)	2.38(0.83)	2.36(0.83)	2.66(0.76)	2.50(0.83)	2.55(0.92)	2.44(0.79)
F4	2.11(0.75)	2.23(0.84)	1.91(0.62)	2.25(0.72)	1.81(0.62)	2.37(0.69)	2.00(0.64)	2.02(0.92)	2.00(0.74)	2.01(0.91)	2.50(0.84)	2.08(0.78)
F5	1.46(0.69)	1.57(0.71)	1.51(0.87)	1.65(0.79)	1.34(0.64)	1.75(0.90)	1.52(0.74)	1.50(0.84)	1.78(1.02)	1.85(1.03)	1.64(0.95)	1.56(0.80)
F6*	2.46(0.99)	1.74(0.74)	2.44(0.92)	2.17(0.84)	1.88(0.86)	2.16(0.87)	2.19(0.75)	2.62(0.98)	2.14(0.67)	2.10(0.99)	2.88(0.84)	2.15(0.90)
F7*	2.50(0.71)	2.94(0.86)	2.36(0.82)	2.24(1.02)	1.81(0.70)	2.43(0.76)	2.34(1.10)	2.04(0.94)	1.75(0.66)	2.29(0.97)	2.14(0.90)	2.34(0.94)
F8	1.73(0.70)	1.85(0.84)	1.80(0.88)	1.69(0.76)	1.53(0.65)	1.67(0.91)	1.60(0.75)	1.77(1.00)	1.88(0.83)	2.07(1.04)	1.57(0.79)	1.75(0.83)
Motivational factors												
M1	3.21(0.94)	2.99(0.85)	3.13(0.70)	3.03(0.79)	2.97(0.77)	3.25(0.55)	2.96(0.60)	3.41(0.81)	3.19(0.69)	2.95(0.65)	3.38(0.61)	3.10(0.77)
M2	2.06(1.03)	2.11(0.87)	2.21(0.83)	2.10(1.07)	2.04(1.04)	1.98(0.90)	1.90(0.86)	2.35(1.13)	2.13(0.83)	2.08(1.01)	2.50(0.99)	2.12(0.96)
M3*	2.84(0.87)	2.98(0.95)	2.85(0.88)	2.78(0.96)	2.77(0.85)	2.98(0.65)	2.66(0.87)	2.90(0.95)	2.20(0.82)	2.67(0.84)	3.29(0.62)	2.82(0.89)
M4*	1.88(0.81)	1.70(0.58)	1.72(0.45)	1.91(0.79)	1.69(0.49)	1.89(0.57)	1.64(0.51)	1.66(0.57)	2.43(0.77)	1.85(0.71)	1.75(0.52)	1.78(0.63)
M5	1.36(0.56)	1.32(0.61)	1.31(0.48)	1.27(0.38)	1.31(0.70)	1.34(0.75)	1.27(0.61)	1.56(0.81)	1.63(0.56)	1.41(0.67)	1.44(0.62)	1.37(0.63)

1. See Fig. 2.

2. 1 : not important--5 : extremely important

F1 : aesthetic landscape, F2 : convenience/social, F3 : safety, F4 : familiarity, F5 : other's will, F6 : quietness,

F7 : health, F8 : on the way to the destination

M1 : experiencing nature, M2 : solitude, M3 : self-training, M4 : social interaction, M5 : appreciating cultural properties

\* It represents that importances within each factor are different based on trails at 0.05 significance level(Bonferroni t-test was used)



경사가 완만하고, 특히 등산로10은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등산로가 넓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등산로보다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등산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등산로의 선정요인의 중요도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등산로의 '경관미', '건강을 위한 여건', '안전성', '고요함', '친숙성', '목적지로 가는 길', '편리성/사회성', '타인에 의해'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나, 등산로의 '경관미'에 대하여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반면, 여성은 '안전성'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경관미', '건강을 위한 여건', '친숙성', '고요함', '목적지로 가는 길', '타인에 의해', '편리성/사회성'의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4).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안전성'과 '타인에 의해'에 0.05 유의수준에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연령에 관계없이 '경관미'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등산로 선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36세 이상인 응답자는 35세 이하의 응답자보다 '건강을 위한 여건'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반면, 35세 이하의 응답자는 '타인에 의해' 등산로를 선정하는 경향이 높았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층의 이용객은 저연령층의 이용객에 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동일한 등산로를 이용하는 휴양참여가 더욱 높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의하여 해석될 수 있다.

그룹크기별로 보면, 큰 그룹의 경우는 단독인

**Table 4.** Importance of trail selection factors and motivations by socio-demographic backgrounds and use patterns

Variables	Trail Selection Factors								Motivations				
	F1	F2	F3	F4	F5	F6	F7	F8	G1	G2	G3	G4	G5
<b>Gender</b>													
Male	2.44*	1.59	2.35a	2.04	1.45a	2.19	2.38	1.71	3.08	2.11	2.77	1.76	1.33
Female	2.63	1.66	2.66b	2.17	1.81b	2.05	2.26	1.85	3.14	2.13	2.94	1.84	1.45
<b>Age</b>													
Under 35	2.43	1.61	2.39	2.17	1.72a	2.10	2.04a	1.72	3.27a	2.43a	2.83	1.91	1.42
36-55	2.53	1.61	2.49	2.05	1.56ab	2.15	2.48b	1.78	3.09ab	2.06b	2.82	1.74	1.36
Over 56	2.48	1.59	2.39	2.06	1.33b	2.19	2.37b	1.69	2.89b	1.85b	2.80	1.72	1.30
<b>Size of group</b>													
1(alone)	2.28a**	1.46	2.33	2.16	1.21a	2.19	2.37	1.64	3.12	2.62a	2.93	1.36a	1.32
2	2.48ab	1.53	2.37	2.02	1.46ab	2.17	2.17	1.67	3.05	2.18b	2.68	1.76b	1.32
3-5	2.53ab	1.64	2.51	2.02	1.73bc	2.08	2.40	1.84	3.14	1.90bc	2.86	1.91b	1.35
Over 6	2.68b	1.72	2.55	2.13	1.97c	2.13	2.47	1.87	3.06	1.77c	2.84	2.16c	1.58
<b>Past experience</b>													
1(first visit)	3.52a	1.86	2.89	1.76	2.00a	2.64	2.14ab	2.36	3.89	2.62	2.91	1.93	2.29*
<1/Month	2.47b	1.73	2.41	2.13	1.86ab	2.31	1.93a	1.79	3.26	2.20	2.52	1.96	1.48
1-5/Month	2.46b	1.58	2.43	2.05	1.55ab	2.09	2.30ab	1.72	3.09	2.12	2.82	1.77	1.33
6-10	2.50b	1.66	2.40	2.09	1.52ab	2.19	2.72b	1.78	3.08	2.01	2.90	1.70	1.37
Over 10	2.50b	1.54	2.53	2.26	1.30b	2.02	2.79b	1.70	2.73	2.00	3.07	1.72	1.31
<b>Education</b>													
Middle	2.39	1.67	2.41	1.95	1.67	2.00	2.34	1.86	2.76a	1.85a	2.79	1.62	1.31
High	2.42	1.54	2.36	2.01	1.59	2.07	2.33	1.65	3.08b	2.04ab	2.84	1.80	1.39
>College	2.62	1.65	2.54	2.20	1.51	2.29	2.36	1.83	3.25b	2.29b	2.82	1.84	1.36

F1 : aesthetic landscape, F2 : convenience/social, F3 : safety, F4 : familiarity, F5 : other's will, F6 : quietness, F7 : health, F8 : on the way to the destination  
 M1 : experiencing nature, M2 : solitude, M3 : self-training, M4 : social interaction, M5 : appreciating cultural properties

\* 1 : not important--5 : extremely important

\*\* Different letters mean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ithin each variable at 0.05 significance level.

(Bonferroni t-test was use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t groups with at least one same letter.

경우보다 '경관미'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룹이 클수록 등산로 선정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큰 그룹의 경우는 '안전성'이나 '고요함' 등보다는 '경관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피서를 위하여 계곡을 이용하는 방문객 대부분이 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반영된다. 또한, 큰 그룹의 경우, 타의에 의한 등산로 선정이 많다는 것은 등산로 선정시 그룹 내에서의 사회적인 결정과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방문경험의 정도별로 보면, 첫 경험자는 등산로 선정시 경험이 많은 응답자에 비하여 '경관미'에 대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타인의 의지에 더욱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경험자들의 경관미에 대한 높은 중요도는 등산로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의 주요한 관심이 다른 구체적인 휴양목적 달성보다는 도립공원의 전반적인 풍치감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첫 경험자들의 높은 타인애의 의존도는 경험이 많은 이용객이 경험이 적은 이용객에 비하여 장소선정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Bob Marshall Wilderness Complex 연구결과와 일치되며(Lucas, 1990), 경험이 적은 이용객이 휴양장소에서 제공되는 등산로 선정을 위한 안내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Krumpe와 Brown, 1982)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경험이 적은 이용객은 장소선정시 자신의 제한된 준거기준(frame of reference) 때문에 타인이나 안내문에 의존하는 그들의 성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등산로 선정시, 대체로 방문경험이 많은 응답자가 '건강을 위한 여건'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원을 자주 방문하는 이용객은 주로 건강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5) 휴양동기

Table 2에서처럼, 총17개 항목의 휴양동기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하여 5개 항목, 즉, '자연과의 접촉', '고독', '자기훈련', '사회적 교류', '문화유적지 답사'로 그룹화 되었다.

휴양동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과의 접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훈련', '고독', '사회적 교류', '문화유적지 답사'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등산로별로도 휴양동기에 커다란 차이없이 위와 거의 유사한 순서를 보였으며, '자연과의 접촉'이 모든 11개 등산로에서 가장 중요한 휴양동기로 나타났다. 11개 등산로구간 중 단지 한 구간(등산로9)에서만 '사회적 교류'가 두 번째, '자기훈련', '고독', '문화유적지 답사'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등산로9의 구간에 계곡이 있어 피서를 즐기는 이용객이 많으며, 이들 이용객의 대부분이 가족 또는 친구 등과 함께 그룹으로 방문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각 휴양동기의 중요도를 등산로별로 보면, '자기훈련'은 등산로11, 등산로2, 등산로6, 등산로8에서 다른 등산로보다 높았으며, '사회적 교류'는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등산로9에서 다른 등산로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사회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휴양동기의 중요도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이 35세 이하인 응답자는 56세 이상의 응답자보다 '자연과의 접촉'과 '고독'을 위한 휴양동기를 더 중히 여겼다. 작은 그룹의 응답자는 큰 그룹의 응답자에 비하여 '고독'을 더 중요한 휴양동기로 가지는 반면, '사회적 교류'에 대해서는 더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Table 4).

방문경험이 적은 응답자(첫 경험자)는 월 5번 이상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비하여 '자연과의 접촉'이라는 휴양목적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월 1번 이상 방문한 응답자에 비하여 '문화유적지 답사'에 대한 더 중요한 휴양동기를 가지고 있었다(Table 4). 이것은 첫 경험자들, 특히 타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은 무등산 도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 답사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방문경험이 월 10번 이상인 응답자는 '자기훈련'이 가장 중요한 휴양동기였으며, 이는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그들의 행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교육정도가 대졸이상인 사람은 중졸이상보다 '자연과의 접촉'과 '고독'을 경험하는 것을 더 중요한 휴양동기로 가지고 있었다. 중졸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휴양동기가 '자기훈련'인 반면, 고졸이나 대졸이상은 '자연과의 접촉'이 가장 중요한 휴양동기로 나타났다(Table 4).

6) 휴양동기와 등산로 선정요인과의 관계

등산로 선정요인과 휴양동기와의 관계를 보면, Table 5에서처럼, 몇몇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 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상 상관관계의  $r(=0.3 이상) \cdot 저(r=0.3 미만)$ 에 의하여 관계를 분류하여 보면, 휴양동기, '자연과의 접촉'은 등산로의 선정요인인 '경관미', '안전성', '친숙성', '고요함'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휴양동기 '고독'은 '친숙성', '고요함'과 같은 선정요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휴양동기, '자기훈련'은 '안전성', '친숙성', '건강을 위한 여건'과 같은 등산로 선정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휴양동기, '사회적 교류'는 '경관미', '편의성/사회성', '타의에 의해'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5). 휴양동기, '문화유적지 답사'는 '편의성/사회성'과 '목적지로 가는 길'과 같은 등산로 선정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그 외의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없는 요인들을 보면, '자연과의 접촉', '고요함', '자기훈련', 과 같은 휴양동기는 등산로 선정요인, '타의에 의해'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휴양동기, '문화유적지 답사'와 '건강을 위한 여건'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결과에 대한 요약과 해석,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실질적인 휴양자원 관리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래에서 토의하였다. 또한, 휴양장소 선정문제와 관련

하여 차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이용객의 등산로 선정 요인은 등산로의 속성(attribute)을 나타내는 5개 요인(경관미, 안전성, 고요함, 사회성/편의성, 건강을 위한 여건)과 기타 3개의 내외부적 요인(친숙성, 타의에 의해, 목적지로 가는 길)으로 총 8개 요인에 의해 크게 분류되었다. 전체적으로로는, 등산로 선정요인의 중요도의 순위가 1) 경관미, 2)안전성, 3)건강을 위한 여건, 4)고요함, 5)친숙성, 6)목적지로 가는 길, 7)사회성/편의성, 8)타의에 의해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Table 3에 나타나듯이, 각 등산로에 따라 등산로 선정시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순위와 각 요인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휴양자원의 관리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무등산 도립공원의 각 등산로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취향을 지닌 이용객이 본인의 기호나 취향에 맞는 특성을 지닌 등산로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등산로의 선정이 무작정 또는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또한, 각 등산로의 독특한 속성이 등산로의 특성을 결정하며, 이용객의 등산로 선정에 주요한 영향인자로서 작용한다고 보면,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조절 또는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특성을 지닌 등산로를 조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용객들의 등산로 이용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산로2는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약수터, 체력단련을 위한 등산로의 급한 경사, 체육시설 등 건강을 위한 여건의 구성이 등산로2에 많은 이용객들을 끄는 요인으로 판단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rail selection factors and motivations

Motivations	Trail Selection factors							
	F1	F2	F3	F4	F5	F6	F7	F8
M1	0.47***	0.15**	0.41***	0.31***	0.09	0.38***	0.18***	0.18***
M2	0.19***	0.17**	0.20***	0.35***	0.08	0.36***	0.16**	0.18***
M3	0.25***	0.24***	0.32***	0.34***	0.09	0.19***	0.37***	0.21***
M4	0.38***	0.37***	0.29***	0.26***	0.40***	0.15**	0.18***	0.27***
M5	0.21***	0.31***	0.20***	0.16**	0.28***	0.16**	0.09	0.43***

Numbers ar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r) \*\* < 0.01, \*\*\* < 0.001

F1 : aesthetic landscape, F2 : convenience/social, F3 : safety, F4 : familiarity, F5 : other's will, F6 : quietness, F7 : health, F8 : on the way to the destination  
 M1 : experiencing nature, M2 : solitude, M3 : self-training, M4 : social interaction, M5 : appreciating cultural properties

된다. 이러한 경우에, 약수터의 폐쇄나 다른 등산로에 새로운 약수터의 개발 또는 기타 다른 속성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위한 여건을 중요한 등산로 선정요인으로 생각하는 이용객들을 다른 등산로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등산로2의 혼잡문제나 토양침식과 식생파괴와 같은 생태문제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각 등산로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등산로가 지닌 특성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이용객에게 등산로에 따라 다양하고 고유한 휴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등산로8은 '고요함'이 가장 중요한 등산로 선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용객은 이 등산로가 고요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요함'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용객수가 적어야 한다든지 소음이 없는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도립공원의 원효사 입구로부터 늦재를 경유하여 장불재까지의 군사도로를 차량통과허용지역으로 개방하게 되면, 등산로8에 많은 이용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등산로8 구간은 고요한 장소로서의 특색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인은 이러한 각 등산로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속성을 어떻게 관리 또는 조절하여야 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무등산 도립공원의 매년 증대되는 이용객을 고려할 때(광주광역시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1996), 이러한 속성들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만이 무등산 도립공원 특유의 휴양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무방비로 방치하거나, 잘못된 관리전략의 도입은 이러한 도립공원 고유의 휴양경험을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더욱더 심각한 관리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휴양동기는 '자연과의 접촉', '자기훈련', '고독', '사회적 교류', '문화유적 답사'로 크게 5가지로 분류되었다. 각 휴양동기에 대한 중요도의 순위는 1)자연과의 접촉, 2)자기훈련, 3)고독, 4)사회적 교류, 5)문화유적 답사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휴양동기의 중요도는 등산로별로 커다란 차이없이 거의 유사한 순서를 보였는데, 특히, '자연과의 접촉'은 무등산 도립공원의 모든 등산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휴양동기로 나타

났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도시지역 거주자라는 점과 무등산 도립공원의 자연공원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는 자연공원과 같은 산림휴양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갖는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인 휴양동기로서, 관리측면에서 볼 때, 무등산 도립공원의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등산로에 관계없이 '자연과의 접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그 이외의 더욱 구체적인 휴양목적을 이룰 수 있는 등산로의 속성 조정에 의한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다양한 휴양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휴양동기와 등산로 선정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것은 등산로선정 요인이 휴양동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완전히 배타적이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교류'를 위한 휴양동기와 고요한 등산로와는 상반된 관계가 기대되지만 사회적 교류를 원하는 이용객도 또한 고요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싶어할 수 있다. 만약, 각 요인간에 모두가 유사한 강도로 상관관계가 성립된다면 속성접근방법은 휴양자원관리적인 적용측면에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각 선정요인과 휴양경험의 종류간에 상관관계의 강도가 높은 것, 보통 또는 약한 것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휴양경험의 종류와 선정요인의 특성이 더욱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낮은 것은 휴양경험의 종류와 선정요인의 특성이 일치되지 않거나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휴양경험의 종류와 선정요인간에 관계가 있으며, 이는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ROS)의 적용과도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즉, 사람들은 일정한 휴양동기를 가지며, 이러한 휴양동기를 이루기 위하여 적절한 속성을 지닌 장소를 선정한다는 ROS개념(Driver 등, 1987)의 기본전제조건을 만족시킨다. 바꾸어 말하면, 등산로 선정요인 또는 속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등산로가 제공하는 휴양경험의 종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휴양동기와 휴양장소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직접적이며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관련성이 부족하여(McCool 등, 1984), 이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실증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등산로의 선정요인과 휴양동기의 중요도는 개인적 배경(연령, 성별, 과거의 경험, 교육의 정도)과 이용행태(그룹의 크기)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이용행태에 따른 휴양동기와 등산로 선정요인의 중요성에 차이 등을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이용객 유형에 따른 그들의 취향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관리전략에 유용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무등산 도립공원의 경우, 이용객의 상당부분이 여성(32%)이며 50세 이상의 고령층(34%)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휴양경험에 대한 기호와 취향, 또는 이용행태 등에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그룹방문객이 단독방문객에 비하여 등산로선정시 '타의에 의해'에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는 휴양장소 선정시 그룹 내에서 사회적 영향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던 과거 연구(Roggenbuck와 Berrier, 1982)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 이용자의 93.3%가 그룹방문자로 나타난 모악산 도립공원을 비롯하여(김세천 등, 1995), 다른 많은 자연공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공영호 등, 1989; 공영호 등, 1990; 김용근, 1993), 본 연구결과에서도 전 응답자의 약 83%가 그룹이용객으로 나타나, 산림휴양지역에서의 대부분의 휴양참여가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등산로의 선정이 개인적인 선정과정에 의해서 보다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상호교류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등산로 선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등산로나 휴양장소의 선정과

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일곱째, 속성접근방법(attribution approach)을 휴양자원관리에 응용하는 것은 이용객들이 각 장소에 대한 속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관리인은 이용객들에게 각 등산로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의 욕구나 동기 또는 기대에 가장 합치되는 등산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에게 양질의 휴양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이용객들로 하여금 다른 대안등산로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인식을 시켜 줌으로써 이용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제공이 다른 등산로의 이용행태와 속성을 변화시켜 등산로의 전반적인 특성이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관리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정보의 이용이 요구된다. 현재, 등산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친구나 동료로부터 얻고 있으며, 무작정 선정하는 경우는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Table 6). 하지만 더욱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은 등산로 선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의 안내판 또는 팸플릿 등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상황은 공원내의 안내판이나 공원관리소에서 제공하는 팸플릿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극히 적은 상태로 객관적인 정보의 이용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원의 등산로 안내판에는 지정등산로와 시설물의 위치, 그리고 등반에 소모되는 시간 등을 기입하고 있지만, 등산로의 선정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는 각 등산로의 주요한 속성 또는 특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Table 6.** Information sources mainly used for trail selection

Information sources	Freq.(Percent)	Information sources	Freq.(Percent)
1. Friends or companions	218 (48.1)	9. Others	5 (1.1)
2. At random	86 (19.0)	10. Newspaper	3 (0.7)
3. Information boards	76 (16.8)	11. Ask to residents	2 (0.4)
4. Tourist guide book	17 ( 3.8)	12. Group leader	2 (0.4)
5. Ask to other users	15 ( 3.3)	13. Park managers	1 (0.2)
6. Past experience	13 ( 2.9)	14. Map	1 (0.2)
7. TV	8 ( 1.8)	15. Radio	0 (0.0)
8. Brochure	6 ( 1.3)		
Total			453 (100.0)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위는 무등산 도립공원 내의 등산로 선정에 한정되었지만 다른 휴양장소들을 포함하여 이용객들이 어떻게 휴양장소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료는 무등산 도립공원 내에서의 이용분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또는 무등산 도립공원이 전반적으로 과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다른 지역의 휴양장소로 이용객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적 이용분산의 관리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 인 용 문 헌

1. 광주광역시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1996. 무등산 자연공원 현황. 무등산사랑. 5-16pp.
2. 광주직할시. 1990. 무등산 도립공원계획. 367pp.
3. 공영호 · 김재현 · 최진호 · 손철호. 1990. 속리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및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응용생태 연구 4(1) : 69-88.
4. 공영호 · 이명우 · 최진호. 1989.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용특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1) : 이용자 성격 및 이용패턴. 응용생태연구 3(1) : 95-106.
5. 김세천 · 허준 · 박봉주. 1995. 모악산 도립공원 이용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3) : 167-176.
6. 김용근. 1993. 소백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 응용생태연구 6(2) : 218 -228.
7. Clark, R.N. and K.B. Downing. 1984. Why here and not there : The conditional nature of recreation choice. Proceedings : Symposium on recreation choice behavior. USDA Forest Service, Intermountain Research Station, Ogden, UT, General Technical Report INT-184 : 61-70.
8. Driver, B.L. 1977. Item pool for scales designed to quantify the outcomes desired and expected from recreation participation. USDA-Forest Service Mimeo, Fort Collins, CO : Rocky Mountain Forest and Range Experiment Station.
9. Driver, B.L., P.J. Brown, G.H. Stankey, and T.G. Gregoire. 1987. The ROS Planning System : Evolution, basic concepts, and research needed. *Leisure Sciences* 9 : 201-212.
10. Engel, F.E., D.B. Roger, and W.M. Paul. 1990. Consumer Behavior. The Dryden Press. Orlando, Florida. 789p.
11. Harris, C.C., B.L. Driver, and E.P. Bergersen. 1984. Do choices of sport fisheries reflect angler preferences for site attributes? Proceedings : Symposium on recreation choice behavior. USDA Forest Service, Intermountain Research Station, Ogden, UT, General Technical Report INT-184 : 46-54.
12. Krumpe, E.E., and P.J. Brown. 1982. Redistributing backcountry use through information related to recreation experiences. *Journal of Forestry* 80(6) : 360-362.
13. Lucas, R.C. 1990. How wilderness visitors choose entry points and campsites. USDA Forest Service., Research Paper. INT-428, 12p.
14. McCool, S.F., G.H. Stankey, and R.N. Clark. 1984. Choosing recreation setting : Processes, findings, and research directions. Proceedings : Symposium on recreation choice behavior, USDA Forest Service, Intermountain Research Station, Ogden, UT, General Technical Report INT-184 : 1-8.
15. Roggenbuck, J.W. and D.L. Berrier. 1982. A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two communication strategies in dispersing wilderness campe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1) : 77-89.
16. Watson, A.A., and J.W. Roggenbuck. 1984. Approximating recreation site choice : The predictive capability of a Lexicographic semi-order model. Proceedings : Symposium on recreation choice behavior. USDA Forest Service, Intermountain Research Station, Ogden, UT, General Technical Report INT-184 : 55-60.